



‘투표’는 꽃보다 아름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장미로 만든 기표 도장 모형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몸집 커지는 민주 ‘빅텐트’

이재명 통합행보에 김상욱·허은아 등 보수 인사 잇단 합류

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빅텐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여권의 빅텐트가 예상됐지만 정작 민주당 지붕 밑으로 합류하는 비이재명계, 중도·보수 진영 인사들이 늘고 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20일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통합 행보로 민주당의 ‘국민 빅텐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내란에 반대한 애국 세력이 부패한 극우 내란 카르텔에 맞서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총결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수와 진보를 넘어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들며 민주당의 빅텐트는 그랜드 텐트로 확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수 책사’로 불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선대위에 합류한 데 이어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입당했다.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와 문병호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 등 개혁신당 출신 인사들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인사의 합류는 민주당이 내란 극복과 헌정 수호라는 가치를 앞세워 보수 인사까지 접촉면을 넓힌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헌정 수호 연대 세력을 최대한 넓게 구축해 ‘민주 대 반민주’라는 선거 구도를 형성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통합 지도자로서 이 후보의 면모를 부각하는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진영 인사들의 합류에 ‘진짜 빅텐트’를 자처하며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용산역 유세에서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말하는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이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대선 초반부터 추진한 빅텐트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이 빅텐트 주도권을 빼앗아 왔다는 자신감도 녹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부 인사 영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합리적인 중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깜짝’ 영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몸집 줄어든 국힘 ‘빈텐트’

김문수, 이준석에 단일화 러브콜...낮은 지지율 반전 모색 사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범보수 단일화의 문을 열어둔 채로 ‘반영(반이재명) 표심’ 결집을 통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대선이 2주일 남은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 여부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8%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단번에 뛰어넘기는 어렵지만,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동력이 될 것으로 당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당 공식 라인인은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메시지를 공개 발신하고 있고, 불발에서도 김 후보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BBS 라디오에 나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의 대표를 했고 두 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이끌어낸 훌륭한 본인인데, 또 역시나 우리 당에서 잘못해서 당을 나가게 했다”며 이 후보

의 탈당 과정에 있었던 당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호랑이가 광야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 들어와서 미래를 보고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반영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 후보 본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도 크게 열려 있다”며 “(이 후보 입장에서도) 앞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 압박이 시작되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5·18 특별 기고’ 히라야마 나루미 서일본신문 기자

민주주의 지킨 광주는 빛났다

광주시민 트라우마 여전
광주일보 기자들 비상계엄에
문 잠그고 호외 제작 ‘감동’



국 영화 ‘택시운전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보도가 통제된 가운데 모든 걸 독일 기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광주 기자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 광주일보(옛 전남일보)의 1980년 6월 2일 자 사고(社告)에는 “알려야 할 의무마저 다하지 못하는 자책과 자성”이라는 문구도 있었다. 신문 발행이 중단된 12일을 지나 다시 신문이 나온 그날의 기사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기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은 슬프게도 5·18의 깊은 트라우마였다. 그리고 총구를 겨눴던 상처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는 ‘광주’라는 도시의 특별함을 절감하게 됐다. 5·18 당시의 서일본신문 기사에는 ‘광주 폭동’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사건의 성격이 그대로 지면에 반영돼 있었다. 5월 27일 석간에는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주화의 길 좌절’이라는 부제목이 실렸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일본어로 번역한 사람도 서일본신문 기자다. 선배들이 인연을 맺은 광주와 나 역시 작게나마 인연을 느끼게 됐다. 태평양전쟁 패전 후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부여받은 일본, 반면에 한국은 피를 대가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같은 말이지만 한일의 민주주의가 가지는 뿌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합류하고 목소리를 낸 모습은 일본에서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졌다. 나에게도 새롭게 보였고 역시 낯설었다. 시위 현장에서 일부러 젊은이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의 생각을 물어봤다. 취재에 응한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에 “가짜 뉴스인가?”라며 혼란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경제 성장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성숙된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그러나 역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군이 들이닥칠 것을 상상하며 두려워하기는 어려웠다. 솔직히 말해 너무 과장된 반응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기자들의 움직임을 들 때마다 그 공포는 실제였음을 서서히 이해하게 됐다. 5·18 당시 군에 굴복해야 하고 윤전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기자들의 통탄은 지금의 보도 현장에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다.

최권일 광주일보 편집국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선배 기자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보여줬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쓰여 있었다. 짧지만 무거운 이 사직서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그리고 여러 번 읽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한

영광 묘량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공람 공고

「영광 묘량농공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영 광 군 수

1. 계획의 개요(변경)

가. 계 획 명 : 영광 묘량농공단지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
다. 사업면적 : 213,647㎡
라. 개발기간 : 2018년 ~ 2025년
마. 시 행 자 : 영광군수(공영개발)
바. 주요 유치업종(변경)
(기정) (변경)
식료품제조업(C10)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음료제조업(C11)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C23)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C23)
기타7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제품 제조업(C33)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7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변경사유 : 당초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C33 업종은 실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대안으로 C25, C28 업종을 신규 추가하여 잠재적 실수요 대응 및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 촉진 도모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묘량면사무소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025. 5. 21. ~ 2025. 6. 9.)
다. 의견제출 :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3. 기타사항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061-350-5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산업단지계획 변경내용
1)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획자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23,326	122,920	100.0	100.0	28	33
제 조 업 (C)	식료품(10), 음료(11)	식료품(10), 음료(11)	21,872	68,524	17.7	55.8	5	19
	기타7기계 및 장비(C29), 기타 제품(C33)	금속가공제품(C25), 전기장비(C28), 기타7기계 및 장비(C29)	70,820	39,266	57.5	31.9	15	11
	비금속광물제품(C23), 기타7기계 및 장비(C29)	비금속광물제품(C23), 금속가공제품(C25), 전기장비(C28), 기타7기계 및 장비(C29)	30,634	15,130	24.8	12.3	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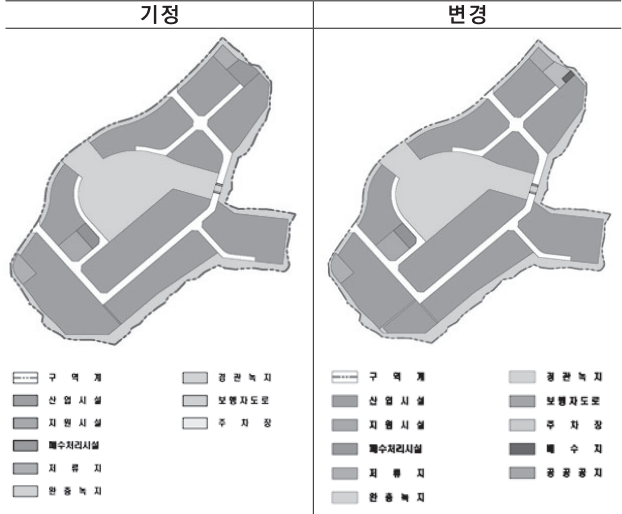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213,647	213,647	100.0	
산업시설용지	123,326	122,920	57.7	
지명시설용지	2,611	2,611	1.2	
공공시설용지	87,710	88,116	41.1	
공공시설용지	1,342	1,342	0.6	
도로	20,467	20,467	9.6	
보행자도로	168	406	0.1	
저류지	3,203	3,203	1.5	
폐수처리시설	2,138	-	-	폐수처리시설 폐지
배수지	-	342	0.1	배수지 신설
공공공지	-	1,796	0.8	공공공지 신설
경관녹지	35,318	35,318	16.5	
완충녹지	25,074	25,074	11.8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별첨 2) 의견제서서식

의 건 서

사 업 명	영광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	
사 업 자	영광군수(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 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